

	<h1>보도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19. 5. 20.(월) 총 5매(본문3)	
담당 부서 교통정책 조정과	담당 자	• 과장 강주엽, 사무관 최준녕, 주무관 정사랑 • ☎ (044) 201-3788, 3785	
보도일시		2019년 5월 2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20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OECD 59개국 교통장관 한 자리에…ITF 장관회의 열려

- ◆ 한국, 의장국 자격으로 22일부터 독일 열리는 ITF장관회의 개최
- ◆ 59개 회원국 장관급 대표단, 전 세계 교통기업 및 언론사 등 1,400여 명 참석
- ◆ 올해는 “지역 통합을 위한 교통 연결성(Transport Connectivity for Regional Integration)” 을 의제로 지역 간국가 간 교통 연결성 향상 위한 협력과제 논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'19년 5월 22일부터 3일간 “지역통합을 위한 교통연결성”을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제교통포럼(ITF: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)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국제교통포럼(ITF)은 OECD 내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관급 회의체로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, 자율주행기술, 국제 교통 네트워크 연결 등 세계 교통분야의 다양한 담론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.
  - 국제교통포럼(ITF)에는 영국, 독일 등 유럽 44개국과 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 등 비유럽 1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.
  -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 활동한 지 13년 만에 첫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으로, ITF 의장국 수임은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이다.
- 올해에는 대한민국 김정렬 2차관을 비롯해 59개 회원국의 장관급

대표단과 전세계 교통기업 및 언론사 등 약 1,4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.

□ 또한, 이번 국제교통포럼(ITF) 교통장관회의 의제는 “지역 통합을 위한 교통 연결성(Transport Connectivity for Regional Integration)”으로, 교통 연결성이 지역통합과 경제 사회적 성장, 환경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.

○ 본회의에서는 ①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구촌 연결 및 ②국경을 초월하는 연결성 확장, ③도시와 근교 지역을 통합하는 더 나은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된다.

- 패널세션에서는 ①교통수단과 기반시설 연결, ②지역간 항공연결, ③변화하는 세계경제에서의 공급망 연결성, ④철도를 이용한 지역 간 연결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.

- 더불어, 각국 장관들이 참석하는 라운드테이블 회의와 공개 세션에서는 ①교통수단과 기후변화, ②새로운 이동성의 거버넌스, ③교통·에너지·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결성 향상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.

□ 이와 함께,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최하는 국제교통포럼(ITF)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대국민 온라인 퀴즈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.

○ 대국민 온라인 퀴즈 이벤트는 오는 5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"올해 의장국으로서 정성껏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들의 현안과 고민을 나누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"고 전했다.

- 특히, “올해 의제는 연결성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시대의 화두가 된  
현 시점에서 ITF차원에서 논의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의제로 생각한다.”며,
- “공동체와 도시가 세계 다른 지역과 통합되고 사회, 경제, 환경적  
측면에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교통연결을 어떻게 개선시켜  
나갈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도록 지켜봐 주길 바란다.”고  
밝혔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 
교통정책조정과 황성필 사무관(☎ 044-201-378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연혁 및 업무

- '53.10월 17개 유럽 국가들로 유럽교통장관회의(ECMT) 발족
  - 효율적인 범유럽 교통체계 구축, 교통안전·환경 등 교통분야 관심 사항 논의 및 공동대응방안 모색(본부 : 파리)
- '07.5월 소피아 총회 시 ECMT를 국제교통포럼(ITF)으로 확대 개편, 우리나라 정회원국 지위 획득
  - \* 회원국(59개국) : 유럽 44개국, 비유럽 15개국(한국, 미국, 중국, 일본 등)
- 경제성장·환경보호·사회통합·웰빙을 위한 교통 분야 싱크탱크 (think tank)로서 글로벌 교통정책 어젠다 형성 및 토론

## □ 조직 및 운영체계

- 매년 1회 장관급 포럼개최(annual summit), 산하 연구센터(TRC)를 통해 연구·통계·정책분석활동 수행
  - (정기 장관회의) 매년 5월말 개최(3일간), 독일 라이프치히
  - (TRC, Transport Research Center) 국제교통포럼의 정책연구 지원 기능을 수행, 위원회는 연구센터 활동내용을 논의(연 2~3회)
  - (TMB, Transport Management Board)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며 연구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, 포럼 준비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
  - (CPB, Corporate Partnership Board) 민간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공식 협의체로 '14.1월 발족 후, 30개 기업(인천공항공사 가입, '15.5) 활동 중
- 사무국(김영태 사무총장, 국토교통부 국장) : 5개 division(60명)으로 구성되며 연례포럼, 연구센터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

**참고 2****국제교통포럼 회원국 리스트**

□ ITF 회원국 현황 &lt;총 59개국 유럽44개국 + 비유럽 15개국(\*)&gt;

UAE*	슬로베니아
그루지야	아르메니아
그리스	아르헨티나*
네덜란드	아이슬란드
노르웨이	아일랜드
뉴질랜드*	아제르바이잔
덴마크	알바니아
독일	에스토니아
라트비아	영국
러시아	오스트리아
루마니아	우크라이나
룩셈부르크	이스라엘*
리투아니아	이탈리아
리히텐슈타인	인도*
마케도니아	일본*
멕시코*	중국*
모로코*	체코
몬테네그로	칠레*
몰도바	카자흐스탄*
몰타	캐나다*
미국*	크로아티아
벨기에	터키
벨로루시	포르투갈
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	폴란드
불가리아	프랑스
세르비아	핀란드
스웨덴	<b>한국*</b>
스위스	헝가리
스페인	호주*
슬로바키아	